

## 2011년 인도 자동차 판매현황 및 향후 전망

### □ 최근 인도 경제 및 자동차 시장 현황

- 2011년 중 인도경제는 특히 유럽발 위기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고물가 및 루피화 급락 등으로 저성장 흐름이 지속됨.
  - 인도 중앙은행은 인도 재계 및 금융권의 이자율동결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조치를 단행(Repo rate 8.5%) 하는 등 고금리정책을 유지해 옴에 따라 자동차 내수시장이 부진함.
-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주요 메이커들의 신차출시가 이어지는 등 판촉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반응이 냉담하였음.
  - Toyota 및 Volks Wagen에 이어 혼다의 경우 9월에 1,200cc Brio를 현대자동차는 10월에 800cc Eon을 출시하였음.
-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인도의 자동차판매 증가율이 4.2%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현대자동차도 역대 최저의 성장률(4.4%)을 기록함.

- 소형차 출시가 본격화된 Toyota 및 Volks Wagen은 전년대비 2~5배 성장하였으며, 2012년에도 Maruti-Suzuki, 현대 및 Tata 등 Big 5와 치열한 판매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중 승용차 판매실적 현황 및 향후 전망

- 현대자동차는 Maruti-Suzuki사에 이어 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는바, Volks Wagen 및 Toyota가 약진하였고 Nissan, Ford 및 Skoda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고 여타 기업들은 점유율이 하향됨.

(단위:천대,%)

구 분	2010년	시장점유율	2011년	시장점유율
Maruti-Suzuki	909	48.6	844	43.3
<b>현 대</b>	<b>357</b>	<b>19.1</b>	<b>372</b>	<b>19.1</b>
Tata	250	13.4	247	12.7
Ford	81	4.3	93	4.8
GM	90	4.8	89	4.6
VolksWagen	33	1.7	78	4.0
Toyota	11	0.6	73	3.8
Honda	62	3.3	47	2.4
Skoda	20	1.1	29	1.5
Nissan	7	0.4	23	1.2
Fiat	22	1.2	17	0.9
합계	1,870	100.0	1,948	100.0

자료 : SIAM(Society of Indian Automobile Manufactures)

- 2012년에는 루피화 가치회복에 따른 물가안정과 금리인하 등에 따라 점진적인 내수시장 회복이 기대되며,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차출시 및 소비자 구매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뉴델리사무소 제공】